



2010

동북아역사재단 신간도서목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UBLICATION LIST

천가 진흥왕 흑수말갈 칭기스칸
 상리화 민족로속운동 一統三韓 평양성
 민족해방운동 안중근 만보산사건 문화대혁명
 여진족 견훤 통골반령 만보산사건 조선사연구회
 아편전쟁 쿠수주의 기마쿠리야비 창녕신라비 수혈식석판 속말말갈
 청일전쟁 각저총 국훈대신 조선사연구회
 메르겐 세형동검 遼東 창덕궁
 시아 야스쿠니신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진흥왕 비리성
 대륙의난 텍산리고분 민족 박혁거세 이송휴
 엔치 渤海 마이더 쿠수주의 바투 영해왕 대조영
 대승불교 다뉴브강 광개토대왕 발해 부하라
 신당서 사르국 다탈라진 포승주이 동북3성
 포스트모던론 바카노르 흥노 高車 태무진
 세종대왕 압록강 안동도호부 고려모자 투르판 호우충
 당기수렌 북경 국민당 산비록
 문화대혁명 유민조선 中國 한사군
 로마제국 만리장성 마스테네크 청사공정 리일전쟁
 진족 바카노르 상자대전 주몽
 들길 고인돌







2010 동북아역사재단 신간 도서목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UBLICATION LIST



역사 교양 · 6



아시아사



한국 · 12



중국과 주변지역 · 24



일본 · 38



유럽사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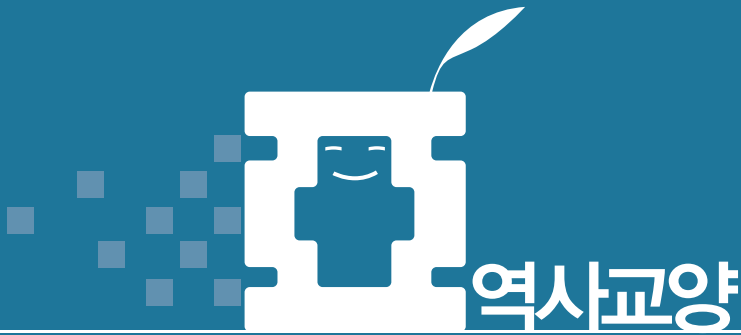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역사인식 · 48



독도 · 국제법 · 56

동북아역사재단 총 도서목록 · 62
2007.10~2010.2



역사 속의 한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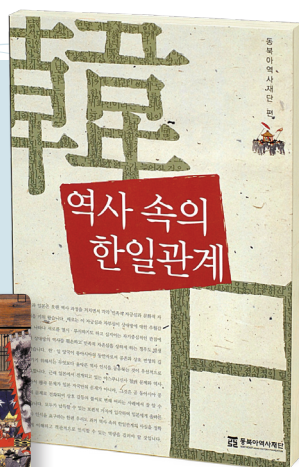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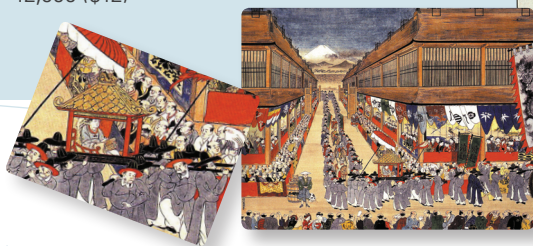
KOREAN-JAPAN RELATIONS I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 eds.)

신국판 335쪽 (Small octavo 335p)

2009

₩ 12,000 (\$12)



이 책은 한일관계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입니다. 한국사, 일본사, 한일관계사를 전공하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일관계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선정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주제의 범위는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한일관계사의 쟁점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한 한일 학계의 서로 다른 시각까지도 비교할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 부분에서는 오늘날의 역사 인식 문제와 직결되는 역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여러 정치적 과정과 식민지 경험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발전해 왔는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적합하며, 한일 역사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14-3

고구려를 찾아서

IN SEARCH OF KOGURYO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 Eds.)
- ↳ 46배변형 224쪽 (B5 modification 224p)
- ☑ 2009
- ₩ 12,000 (\$12)



답사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탐구의 여행이자 책에서 배운 지식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현장의 역사적 유래와 유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보람 있는 답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고구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돕기 위한 안내책자입니다. 중국에서는 동북 지방, 우리에게만은 만주라는 말로 익숙한 이 지역은 고구려가 나라를 세우고 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곳이자, 중국왕조 및 유목 세력에 맞서 국토를 수호한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만주는 고구려의 첫 출발과 성장, 최후까지의 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답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선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인과 집안을 둘러보고, 심양과 단동 그리고 요동반도에 남아있는 고구려 산성들을 답사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의 주요한 유적과 기록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해석을 달았습니다. 또한 지도와 답사코스가 나와 있어 손에 들고 다니며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의 유적소재지를 가늠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고구려가 우리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방대한 영역을 지배하고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ISBN 978-89-6187-078-8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1·2

PAST AND PRESENT OF KOGURYO REMAIN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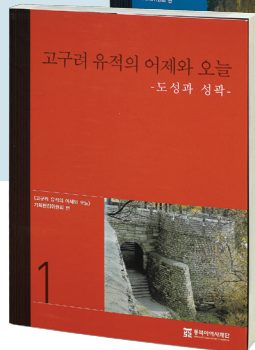


📖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기획편집위원회 편
(Past and Present of Koguryo Remains - Planning and Editorial Committee)

📏 46배변형 814쪽 (B5 modification 814p)

📅 2009

₩ 각 20,000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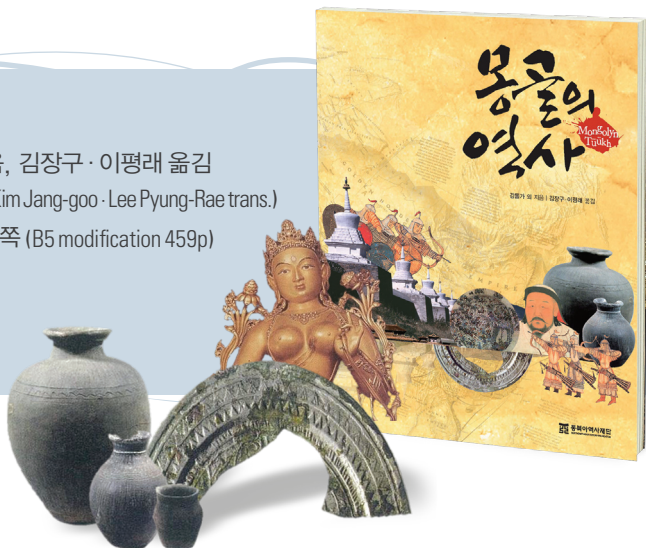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이후,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역사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역사의 현장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과의 공간적 거리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거리감을 극복하고, 고구려 유적의 생생한 현장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남북한 및 중국에 남아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의 전체적인 면모를 담았고, 시간적으로는 일제시기에 촬영된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 변천된 모습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널리 알려지거나 역사적 의미가 두드러진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고구려 문화유산의 정수만을 골랐으며, 그 사진을 통해 유적의 변화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권에서는 졸본(환인), 국내성(집안), 평양성(평양) 등 고구려 도성과 성곽의 다양한 면모를 다루었습니다. 2권에서는 적석총과 봉토석실분 및 세계적 문화유산인 벽화고분과 같은 고구려의 귀중한 고분문화와 금석문을 포함한 다양한 출토 유물을 담았습니다. ISBN 978-89-6187-153-2

몽골의 역사

HISTORY TEXTBOOK OF MONGOL

- 📖 강톨가 외 지음, 김장구·이평래 옮김
(Gantulga et al., Kim Jang-goo · Lee Pyung-Rae trans.)
- 📏 46배변형 459쪽 (B5 modification 459p)
- 📅 2009
- ₩ 17,000 (\$17)



📖 이 책은 현재 몽골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몽골사' 교과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몽골에서 발간할 당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교과서를 일종의 '몽골통사' 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몽골 학생을 대상으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어떤 부분은 너무 소략하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서술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칭기스칸과 몽골 제국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기울어진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특히 만주를 청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의 몽골과 20세기 초 몽골의 독립 과정에 대한 몽골인의 역사인식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몽골의 역사교육과 자국사 인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몽골과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와 유목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몽골에 대해 알고 있던 기존의 시각과 몽골인의 시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23-5



역사 속의 한일관계

고구려

역사 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 유적의 이해와 오늘

1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 유적의 이해와 오늘

2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를 찾아서

고구려 유적의 이해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아시아사
한국

중국의 통일국가론으로 본 고구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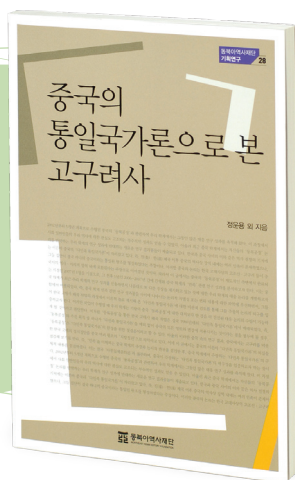
READING KOGURYO HISTORY THROUGH THE LENS OF
CHINA'S "UNITED MULTIETHNIC STATE" IDEOLOGY

정운용 외 지음 (Jeong Woon-yong et al.)

신국판 195쪽 (Small octavo 195p)

2009

₩ 11,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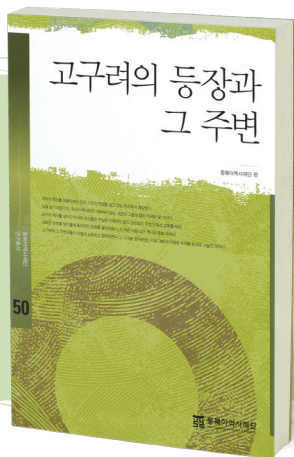


이 책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제도적으로 완료된 2007년 1월을 기점으로, 이 기간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출간된 고구려 관련 연구 성과물을 분석하고 그 연구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중국 학계는 고조선을 비롯한 한국 고대의 정치집단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해 왔고, 특히 고구려에 대해서는 남북통일 후를 대비한다는 목적에서 심각한 왜곡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학계는 중국의 이러한 왜곡을 반박하며,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중국 학계가 주목하여 온 논제인 '다민족 통일국가론(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고구려 지방정권론'에 기반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이 책에서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의 문제, 고구려 건국의 문제, 고구려 영역의 문제 및 고구려와 중국 사이의 책봉 관련 사항의 실체를 밝히고 이른바 '고구려 지방정권론'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37-2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THE APPEARANCE OF KOGURYO AND ITS BACKDROP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 신국판 417쪽 (Small octavo 417p)
- 📅 2009
- ₩ 16,00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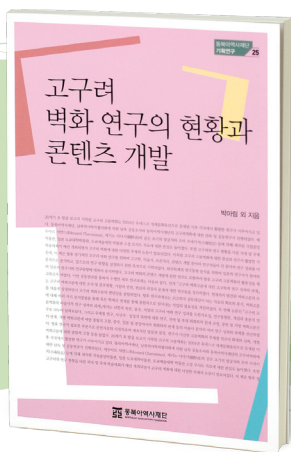


📖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와의 대화에서 얻는 교훈 중 하나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열린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민족과 교류를 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고구려가 등장하여 어떻게 주변국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그 시대를 영위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저의 기원과 대외관계, 고구려 연화문 와당, 요동 공손씨 정권, 고구려 유민 북위 무소황후 일가의 비지(碑誌), 환두대도, 요동지역 고구려 관련 설화, 동주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북방민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구려사와 그 주변사가 우리 고대 역사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과의 역사 갈등 문제로 고구려와 그 주변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관련된 전문 서적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48-8

고구려 벽화 연구의 현황과 콘텐츠 개발

RESEARCH OF THE KOGURYO MURALS PAINTINGS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DIGITAL CONTENT

- 📍 박아림 외 지음 (Park A-rim et al.)
- 📖 신국판 237쪽 (Small octavo 237p)
- 📅 2009
- 💰 ₩ 11,000 (\$11)



📖 20세기 초 발굴 보고가 시작된 고구려 고분벽화는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의한 남북 공동조사와, 동북아역사재단의 고구려 벽화에 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유럽과 일본의 에두아르 사반느(EDOUARD CHAVANNES),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와 같은 초기의 발굴자와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를 제작한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등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고구려의 연구 현황을 다룬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가 매년 개최되면서 고구려 벽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이 책은 장기적인 고구려 벽화연구를 위하여 고고학, 미술사, 보존처리, 콘텐츠 개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고구려 고분벽화를 단순히 유물로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적 자산으로써의 다각성 활용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33-4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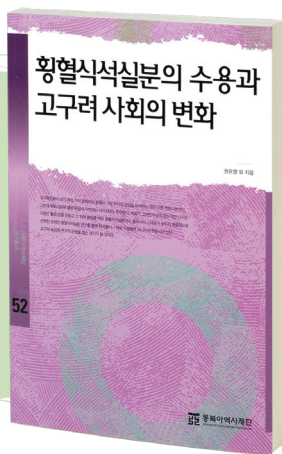
THE ADOPTION OF THE HORIZONTAL ENTRANCE-STYLE
STONE CHAMBER TOMB AND CHANGES IN KOGURYO
SOCIETY

권오영 외 지음 (Gwon Oh-yung et al.)

신국판 327쪽 (Small octavo 327p)

2009

₩ 14,0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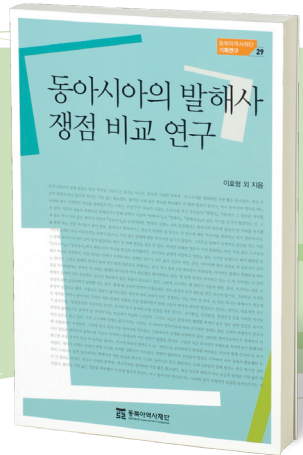


고구려인들이 남긴 여러 가지 문화유산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단연 벽화고분일 것입니다. 현재 90여 기 정도 확인된 고구려 벽화고분은 다양한 소재, 화려한 색채, 풍부한 내용으로 인해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벽화고분에 몰린 관심의 뒤편에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벽화가 그려진 무덤의 압도적인 다수는 다듬은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봉토를 씌운 횡혈식석실분입니다. 고구려에서는 기단적석총의 매장주체로 횡혈식석실이 채택되기도 하고 석실봉토분의 형태로 채택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외형은 다르게 보이지만 기본적인 장제는 동일한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혈식 묘제에서 횡혈식 묘제로의 변화는 장제라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벽화고분에 내재된 내세관이나 사상은 횡혈식 묘제의 보급과 짝을 이루는 만큼 이 두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묘제가 바뀌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고구려 사회의 변화, 발전상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150-1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THE CONFLICTING VIEWPOINTS ON BALHAE HISTORY AMONG EAST ASIAN NATIONS

- 이효형 외 지음 (Lee Hyo-hyeong et al.)
- 신국판 375쪽 (Small octavo 375p)
- 2009
- ₩ 15,000 (\$15)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모여 세운 국가로, 신라와 함께 남북국을 이룬 한국사의 일부입니다.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되기 전까지, 발해는 신라·당·일본·돌궐·거란 등 주변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펼치며 동북아시아에서 해동성국으로 위용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발해의 역사영토가 현재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북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를 세계사적 입장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각국의 자국 중심적 역사인식이 대세를 이루는 현재, 발해사는 국제적인 역사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발해에 대한 연구와 시각을 좀더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발해사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발해란 무엇인가 하는 실체론적인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시각을 하나로 모아 각 나라에 산재한 발해 유물과 유적을 공동으로 관리·연구하고, 자국 중심적 구도에서 벗어나 인식과 이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공동의 인식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발해사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39-6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종합연표

GENERAL CHRON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OF KORYO AGE

장동의 지음 (Jang Dong-ik)

46배판 523쪽 (B5 523p)

2009

₩ 30,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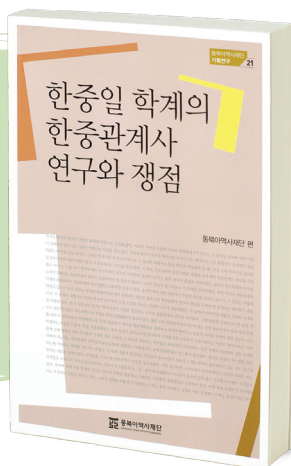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전문가로, 최근 수년간에 걸쳐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10~14세기의 중국 및 일본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한반도에 관련된 기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표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대외관계를 연도별로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개방적 대외 정책을 펼치며 어느 시대보다도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사를 종합한 이 책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기존에 한·중·일에서 발간되었던 관련 논저들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중국 및 한국의 정사를 면밀히 검토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관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종합연표』의 발간을 계기로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려사 연구의 진일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ISBN 978-89-6187-129-7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THE ISSUES AND STUDY OF SINO-KOREAN RELATION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CADEMIA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 eds.)
- 신국판 429쪽 (Small octavo 429p)
- 2009
- ₩ 15,0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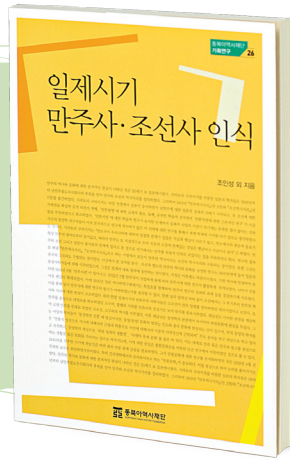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중 양국은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한중관계사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약 100여 년에 걸친 한중관계사 연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다시 한국 학계와 중국 학계의 연구로 나누어 각 시대별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사 연구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는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는 한국 학계의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학계의 연구와 일본 학계의 연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중국 학계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또 그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앞으로도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명의 중국사 연구자가 근대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중관계사 연구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SBN 978-89-6187-125-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PERCEPTIONS OF HISTORIES ON KOREA AND MANCHURI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 📖 조인성 외 지음 (Jo In-seong et al.)
- 📖 신국판 217쪽 (Small octavo 217p)
- 📅 2009
- ₩ 10,0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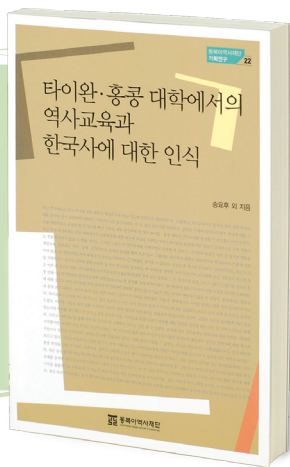
📖 20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들은 조선과 만주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과 만주의 역사, 지리 및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만주를 중국과는 별개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만주사 혹은 만몽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만주지역을 ‘만주족의 땅’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아닌, 주권 국가 영토(중국)의 일부, 즉 변강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북지역이 역사의 여명기부터 중국의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인들은 만주사·만몽사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일제시기 만주와 조선에 대한 역사인식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우선 만선사관과 관련하여, 만주사 혹은 만몽사에 대항하여 출현한 중국의 동북사 연구의 현황을 밝히고, 그에 반대하여 만주와 몽골 각각의 문화를 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정리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35-8

타이완·홍콩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HISTORY EDUCATION AND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N THE UNIVERSITIES OF TAIWAN AND HONGKONG

- 송요후 외 지음 (Song Yo-hu et al.)
- 신국판 305쪽 (Small octavo 305p)
- 2009
- ₩ 12,000 (\$12)



이 책은 2008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간한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와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를 보완한 것입니다. 타이완과 홍콩은 최근 큰 정치적 변동을 겪으며 각각 나름대로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타이완과 홍콩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역사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한 한국 학계의 연구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예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타이완과 홍콩 교수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지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문제점,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타이완과 홍콩 학계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개선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30-3

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반도 - 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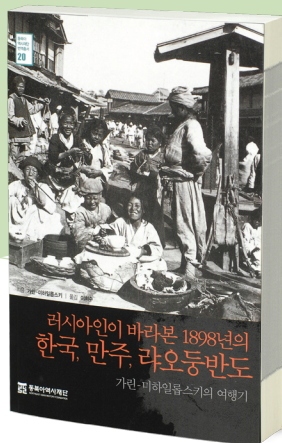
KOREA, MANCHURIA AND LIAODONG PENINSULAR IN THE EYES OF RUSSIANS: TRAVELOG OF GARIN MIKHAILOVSKI

📖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가린-미하일롭스키 지음, 이희수 옮김 (Garin-Mikhailovski, Lee Hee-soo trans.)

📖 신국판 583쪽 (Small octavo 583p)

📅 2010

₩ 20,00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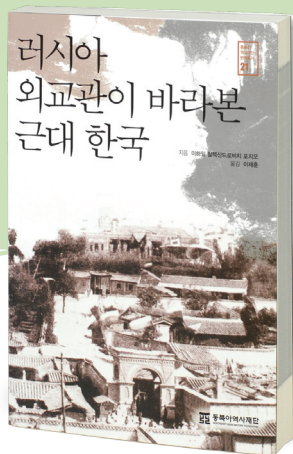


📖 이 책은 가린-미하일롭스키가 1898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시베리아철도를 타고 중앙아시아, 시베리아를 지나 블라디보스토크,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을 거쳐 뤼순항, 일본까지를 여행하면서 기록한 일지입니다. 이 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전체 분량의 반 정도가 한국 내에서 쓰인 부분이며 여행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두만강과 백두산, 압록강 지역의 도로와 강의 수심, 식물군·광물군의 분포 등을 조사하고 한국의 민담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가린이 참여했던 1898년 즈베킨초프탐사단은 러시아가 동진하여 시베리아를 개척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극동지역에 관한 탐사를 시작한 이래 구성 인원과 분야에 있어 가장 대규모 조사단이었습니다. 가린이 체류할 당시 한국은 이미 열강들의 각축장이었고, 혼란한 시기에 정부의 착취와 관리들의 횡포, 호랑이와 마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가린은 연민의 정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책은 1898년 한국이 러시아인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생생하게 전달하는 충실한 여행기입니다. ISBN 978-89-6187-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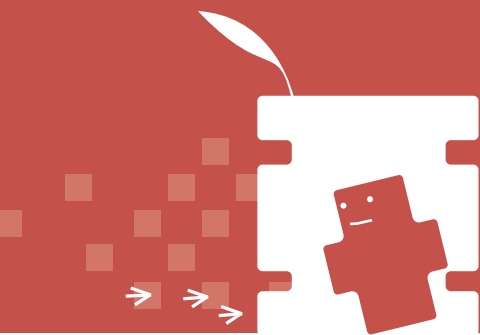
러시아 외교관이 바라본 근대 한국

KOREA IN THE EYES OF RUSSIAN DIPLOMAT

- 📖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포지오 지음, 이재훈 옮김
(Mikhail Alexandrovichi, Lee Jae-hoon trans.)
- 📖 신국판 543쪽 (Small octavo 543p)
- 📅 2010
- 💰 ₩ 20,000 (\$20)



📖 러시아 외교관 포지오가 쓴 『러시아 외교관이 바라본 근대 한국(원제 : 한국개관)』은 러시아에서 소개된 한국에 관한 최초의 책이며, 근대 러시아인의 한국 인식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포지오가 쓴 이 책은 한반도 지도와 지리적 개요에서 시작하여 정치제도, 재판제도, 교육, 가족관계, 한국인의 성향, 건축물, 종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19세기 말의 한국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한 백과사전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울릉도를 정확하게 인식했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당시까지는 미지의 땅이었던 한국이라는 존재를 널리 알리고,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진전시켜 양국을 연결해 주는 정보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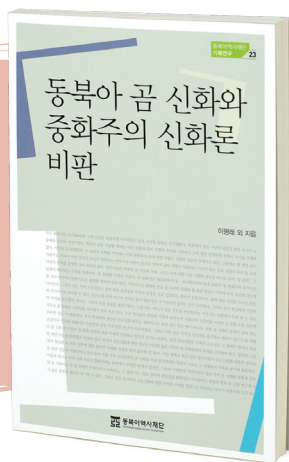
아시아사


중국과 주변지역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THE MYTHS OF THE BEAR IN NORTHEAST ASIA AND THE SINOCENTRIC MYTHOLOGY

-  이평래 외 지음 (Lee Pyung-rae et al.)
-  신국판 249쪽 (Small octavo 249p)
-  2009
-  ₩ 11,000 (\$11)



 현재의 중국 동북지역은 일찍부터 여러 민족과 국가가 흥망을 거듭하였던 공간입니다. 해당 민족들의 문화와 역사는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이 지역의 선사시대는 물론이고 고대사까지도 자신들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북방계 수렵 및 유목민과 연관이 깊은 곰 토템이 황제 유웅씨에서 기원하여 주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단군신화도 중국 황제족의 신화에서 비롯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동북지역 여러 나라의 곰 신화의 기원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곰 신화의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단군신화를 중국의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중국 학자 예수셴의 저서를 분석하고,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중화주의 신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학계의 연구 목표와 내용 그리고 지향점 등을 살피고, 그들이 안고 있는 논리적 모순점과 한국 상고사와의 상관성 등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BN 978-89-6187-131-0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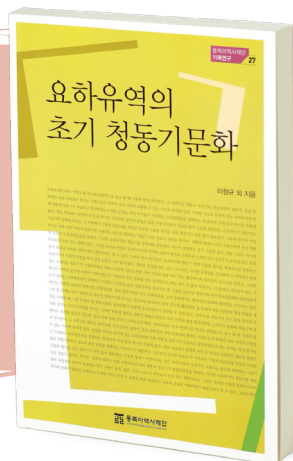
EARLY BRONZE AGE WITH NORTHERN STEPPE CULTURE IN NEIGHBORING REGION OF LYOHE RIVER

이청규 외 지음 (Lee Chung-kyu et al.)

신국판 273쪽 (Small octavo 273p)

2009

₩ 13,000 (\$13)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을 통해 소수민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 중 하나로 요하 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홍산문화(紅山文化)를 중화문명의 기원지로 삼고, 요하일대의 동북지역과 그 문화가 주변 중화문명의 원류이며, 주변지역 소수민족의 문화를 중화문명 안으로 통일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상주(夏商周)문명은 물론, 만주-한반도의 고조선·부여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왜곡하고, 한국사의 주체적 관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원전 2천년기의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단계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요서 내륙의 사회적 발전과정과 주변과의 대외 관계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BN 978-89-6187-136-5

몽골 서북부 지역의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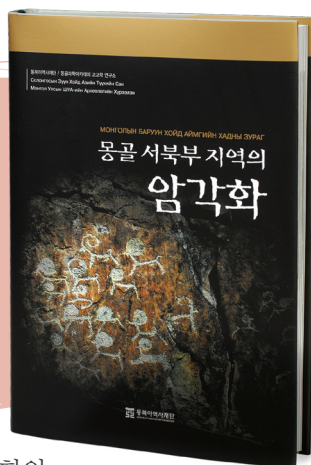
ROCK AND CAVE PAINTINGS IN NORTHWEST MONGOLIA


◇ 동북아역사재단 ·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NAHFeds. · MAS Institute of Archeology)

ㄹ 국배판 447쪽 (A4 447p)

☐ 2009

₩ 39,00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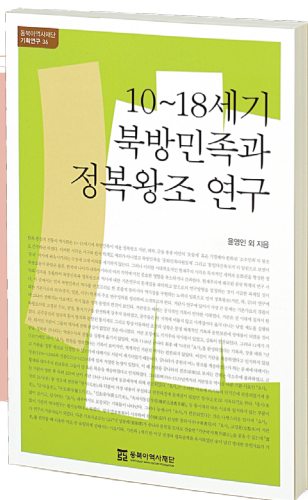


 이 책은 몽골 서북부 지역의 선사 및 고대 암각화의 세계를 파악하고, 중앙아시아가 한국 민족 문화의 기원 및 계통 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몽골의 서북부 지역에 분포하는 여섯 곳의 암각화 유적지와 두 곳의 사슴 돌 유적지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총 340여 장의 사진과 25개의 사슴 돌 도면을 포함한 200여 장의 도면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책 속에서 소개하는 암각화와 사슴 돌 등을 통해서 남부시베리아, 산지 알타이, 내몽골, 우리나라 선사 시대 암각화와 직접적인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선사 및 고대 미술의 양식 변천 과정, 수렵 및 유목민 미술의 보편성 그리고 이 지역에서 꽃 핀 사슴 돌 문화의 독창성 등을 짚어 내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암각화 유적지에서는 우리나라 천전리, 경주 금장대, 포항 칠포리 그리고 안동 수곡리 등지의 암각화 속에서 살피지는 기하학적 형상, 발자국, 말발굽, 동물 발자국 그리고 여성 생식기 등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들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어 향후 한국 선사 미술의 계통성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ISBN 978-89-6187-169-3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HISTORICAL SOURCES AND RESEARCH TRENDS IN THE STUDY OF THE CONQUEST DYNASTIES FROM THE 10TH TO THE 18TH CENTURY

- ✦ 윤영인 외 지음 (Yun Yeong-in et al.)
- ✦ 신국판 273쪽 (Small octavo 273p)
- ✦ 2009
- ₩ 11,000 (\$11)



☞ 현재 중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56개 민족이 이룬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통합하여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요, 하, 금, 원, 청은 ‘중국의 왕조이고, 거란, 탕구트, 여진, 몽골, 만주족은 ‘중화민족’의 일원 혹은 ‘소수민족’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북방민족들이 중화민족에 동화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는 한족 중심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은 북방민족의 역사를 왜곡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10~18세기 북방민족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방민족의 시각에서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한문이 아닌 북방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된 사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와 전통을 중국(한족)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세계사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BN 978-89-6187-168-6

북방민족과 중원왕조의 민족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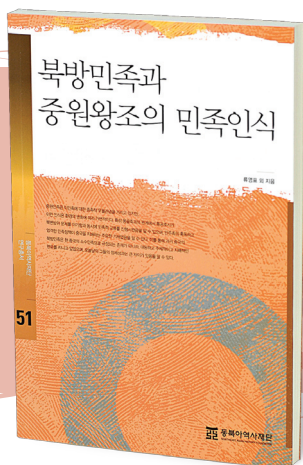
THE NORTHERN RACES AND CENTRAL CHINESE PLAIN DYNASTIES

▣ 류영표 외 지음 (Ryu Yeong-pyo et al.)

▣ 신국판 203쪽 (Small octavo 203p)

▣ 2009

₩ 10,000 (\$10)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중국 소수민족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북방민족과 중원 왕조와의 관계와 인식, 정책 등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티베트 사태, 신강위구르 지역의 유혈사태 등에서 보듯이 ‘변강’ 문제와 이와 관련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민족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역사에서 북방민족의 역사적 역할과 문화적 중요성이 현재의 중국 ‘변강’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목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대 이전 북방민족과 농경민족 간 혹은 다른 민족 간의 상호정책, 인식, 교류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 중국 소수민족 정체성의 역사적 연원에 접근하였습니다. 이 책은 전근대 특히 근세시기 중국과 북방민족의 관계를 주요 왕조 별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즉, 이민족 왕조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요, 송, 명, 청 네 왕조에서의 민족 정책과 민족 인식에 대한 주요 이슈를 선택하여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149-5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 1~6

TRANSLATION AND ANNOTATION: CHINA HISTORY ON FOREIGN RELATIONS: Vol. 1~6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 46배판 (B5)
- ☑ 2009, 2010
- ₩ 각 13,000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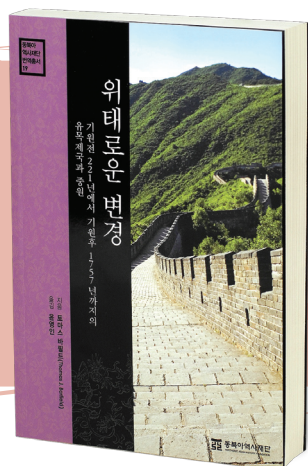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한 이후 중국의 왕조에서는 기전체 형식으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여 이를 정사라 하였으며, 이 정사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나 종족에 관한 기록이 열전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서술되었습니다. 정사의 편찬 목적은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적 역사인식의 확립에 있었으므로 그 체제와 내용에 중국 왕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상황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은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 변경인식, 세계인식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 정사에 ‘외국전’을 두어 기록을 남긴 데 비해, 인접 국가나 민족들은 스스로의 입장에서 정리한 역사 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는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06-8

위태로운 변경

-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THE PERILOUS FRONTIER: NOM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 ◇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Thomas J. Barfield, Peter Yun trans.)
- ㄹ 신국판 633쪽 (Small octavo 633p)
- ㄹ 2009
- ₩ 20,000 (\$20)



 이 책은 부족과 국가 발전에 대한 인류학적 모델을 중원의 북부 변경 부족민들에 대한 역사자료에 적용하여 내륙아시아의 역사를 해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필자에 의하면 초원 부족을 통합하여 형성된 강력한 유목제국은 이웃 정착문명 (특히 중원왕조)과의 대립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그 관계는 일방적 약탈과 조공체제 그리고 교역을 통해 중원에서 초원으로 흘러들어간 물자제공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필드는 유목과 정착문명의 관계를 기존의 '교역 혹은 약탈'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서 동아시아 제국의 흥망성쇠를 정착문명의 중원, 유목문명의 초원(몽골지역) 그리고 산림과 초원문명의 만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바필드는 이 책을 통해 중국 중원왕조와 유목민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가든 물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138-9

중국 동북 연구 - 방법과 동향

THE STUDY OF NORTHEAST CHINA: METHODS AND TRENDS

- 📖 이동진 외 지음 (Lee Dong-jin et al.)
- 📖 신국판 451쪽 (Small octavo 451p)
- 📅 2010
- ₩ 16,000 (\$16)



📖 만주는 중국의 변경인 동시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몽골이 부딪히는 동아시아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동아시아 현대사의 핵심에 위치하며 한국은 이 지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가이므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한반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주가 지역 갈등의 현장이 아니라 지역협력의 현장이 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본격적인 만주 연구를 위한 기초 토대로서 방법론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주를 동아시아의 변경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만주 현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논평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점에서 기존의 논저 목록이나 연구 동향 소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등지의 만주 연구 성과와 시각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71-6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THE SEARCH FOR SOURCES ON MODERN MANCHURIA

- ✎ 한석정 외 지음 (Han Suk-jung et al.)
- 📖 신국판 224쪽 (Small octavo 224p)
- 📅 2009
- ₩ 11,000 (\$11)



📖 연구의 사각이며 변경이었던 20세기 초의 만주는 냉전시대 동북아의 정치·경제·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만주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를 외치는 세계화 시대에도 큰 의미를 지니는 현재적인 존재입니다. 나아가 조선족 노동력의 국제적 확산, 북한의 변동 등 미래에 예측되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근대 만주의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고, 근대 만주 관련 자료를 쉽게 추적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만주 연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예비적 탐색을 통해 시급한 과제부터 장기적인 과제에 걸친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주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주는 동북아의 현재, 특히 남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 의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중국사의 일부로, 또는 주변 지역으로 머물러 있던 만주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라 할 수 있습니다. ISBN 978-89-6187-155-6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QING HISTORY RESEARCH TRENDS IN CHINA

유장근 외 지음 (Yu Jang-geun et al.)

신국판 259쪽 (Small octavo 259p)

2009

₩ 12,0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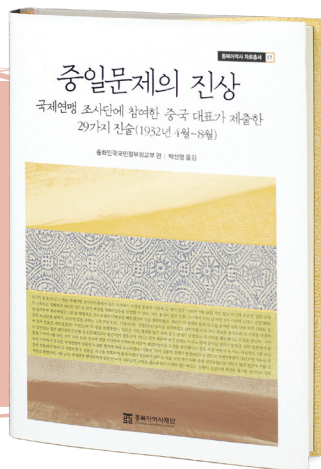
21세기 들어 중국의 역사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중국 정부에서 청대의 역사를 새롭게 편찬하는 ‘국가청사찬수공정(약칭 청사공정)’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외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공정은 새로운 근대 역사학의 방법과 전통적인 기전체 방식을 절충한데다, 마오주의 역사 이론까지 덧붙여져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체제의 역사서 편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중국의 최대 학술사업으로 알려진 청사공정이라는 프로젝트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의 청사 연구에서 한국 학계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를 위해 청초 흥기사, 강희·건륭시대의 성세 열기, 조선·청 관계사와 국경 문제, 청조의 대외관계사 그리고 만청 식민주의 등 다섯 종류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42-6

중일문제의 진상

- 국제연맹 조사단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 (1932년 4월~8월)

REALITY OF CHINA AND JAPAN ISSUES

- ▶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옮김
 (Foreign Ministry of People's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Park Seon-yeong trans.)
- ↙ 46배판 633쪽 (B5 633p)
- ☑ 2009
- ₩ 25,00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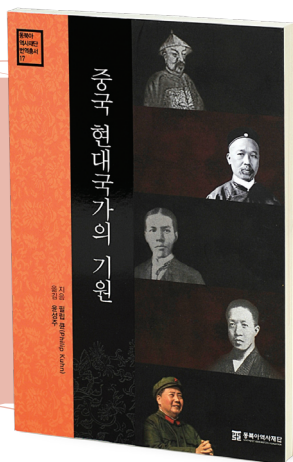


▶ 이 책은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가 국제연맹에 제출한 외교문서를 번역한 것으로, 이 문서는 1931년 9월 18일 일본의 동북(만주) 점령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임을 천명하면서 문제의 발단과 경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부당성을 고발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중일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룬 것이지만, 동북지역의 조선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근현대 문제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주권을 침해당한 중국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일본의 부당성을 밝히는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국제연맹에 호소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질 각종 분규나 미완의 문제로 남겨진 간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책에는 만주가 왜 세계적인 관심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주사변 이후 국제연맹 조사단 보고서와 그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조사하여, 그 당시 전세계가 만주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만주가 가진 한중관계사와의 관련성과 국제성을 고찰하고, 만주사변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5개국으로 구성된 리트조사단의 활동과 한계를 통해 시대적 통찰력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46-4

중국 현대국가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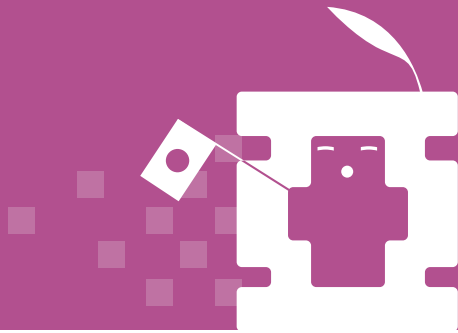
ORIGINS OF THE MODERN CHINESE STATE

- 필립 쿤 지음, 윤성주 옮김
(Philip Kuhn, Yun Seong-ju trans.)
- 신국판 221쪽 (Small octavo 221p)
- 2009
- ₩ 12,000 (\$12)



이 책은 중국에서 성립된 현대국가들이 어떠한 ‘중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국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내적 동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사 내부의 고유한 흐름이란 ‘중화제국’ 후기(명청 시대)와 근현대를 연결하는 중국 국내의 ‘헌정적 어젠다(Constitutional Agenda)’에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말하는 ‘헌정’은 “민중이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삶을 정당하게 영위하는 틀을 짤 때 발생하는 주된 이해관계”를 말하며, ‘어젠다’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에 연관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하려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중국식 현대국가의 지향이 유럽적 계몽 사조가 중국에 수입되기 100년 전부터, 중국 자체의 고유한 사상 및 제도적 전통과 사회 환경 속에서 전혀 새로운 경로를 펼치고자 한 사람들의 오랜 열망 속에서 이미 발견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중국의 현대국가가 얼마나 중국적인 전통과 사상의 맥락 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그야말로 ‘중국적인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21-1





아시아사_
일본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JAPANESE THOUGHT IN EAST ASIAN WORLD

김현구 외 지음 (Kim Hyun-koo et al.)

신국판 273쪽 (Small octavo 273p)

2009

₩ 13,000 (\$13)



한국과 중국, 일본, 나아가 베트남을 포함

하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조공과 책봉을 근간으로 외교를 전개했던 중국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반드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따르고 고집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에서는 '소천하(중화)사상'이, 일본에서는 '일본형 화의의식'이, 베트남에서는 '대남국사상(大南國思想)'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싶어하며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의 시도는 항상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인들이 일본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가 갖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일본 중심주의'의 실태와 이념을 통시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서 살펴 본 '일본 중심주의'는 단순히 일본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넘어 한반도와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88-7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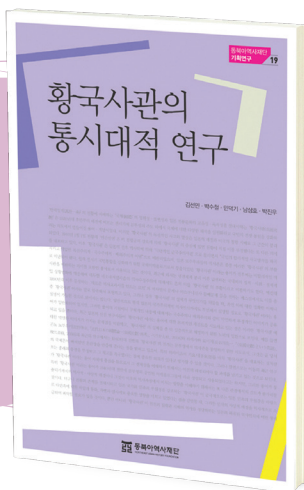
STUDIES ON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EMPIRE

✦ 박수철 외 지음 (Park Su-cheol et al.)

📖 신국판 329쪽 (Small octavo 329p)

📅 2009

₩ 13,000 (\$13)




📖 천황의 존재를 절대시하고 일본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황국사관’은 궁극적으로는 일본 민족의 우월감을 바탕으로 타민족에 대한 억압과 동화, 차별과 멸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인식의 사상적 배경을 역사적으로 해명하고 그것이 전전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어떤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책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황국사관’에 대한 연구현황과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점을 바탕으로 ‘황국사관’이 일본사의 각 시대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날 일본의 역사인식에 어떠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일 간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대응 수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ISBN 978-89-6187-0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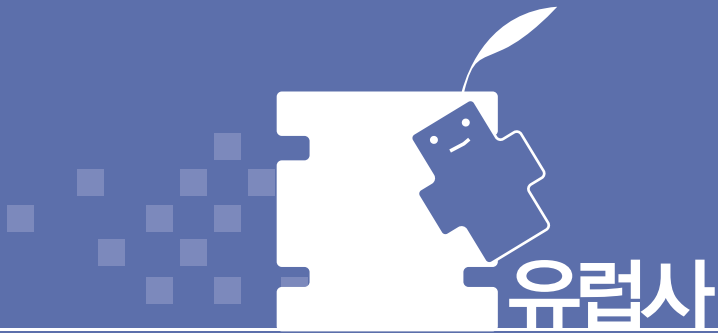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JAPANESE PERCEPTION OF KOREA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 📖 김광열 외 지음 (Kim Gwong-yol et al.)
- 📖 신국판 135쪽 (Small octavo 135p)
- 📅 2009
- ₩ 8,000 (\$8)



 이 책은 한일관계의 한 축인 일본사회에 초점을 두고, 20세기 초에서 현재까지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인접한 이웃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밀접한 상호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관계가 원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라는 양국의 관계는 35년간 지속되었지만, 그 영향과 기억은 현재까지 한일 양국 사이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습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를 구축하는데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적 기억의 치료라는 20세기가 남긴 숙제를 푸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작업의 작은 한 부분으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1900년대 초 일본에서 출간된 조선 관련 서적들을 분석하고,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등의 소송'과 일본의 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한국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ISBN 978-89-6187-0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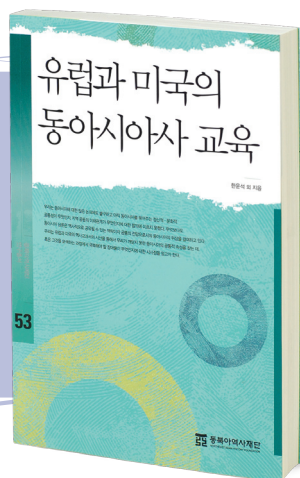


유림사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EAST ASIA HISTORY EDUCATION IN EUROPE AND AMERICA

- 한운석 지음 (Han Un-seok et al.)
- 신국판 325쪽 (Small octavo 325p)
- 2009
- ₩ 13,000 (\$13)



이 책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역사교육 현장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동아시아를 묶어주는 정신적·문화적 공통성이 무엇인지, 지역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담론은 역사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맥락이자 공통의 전망으로써의 위상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동아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한 동아시아의 공통적 속성을 찾고, 그것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사의 경계를 가로질러 관통하고 있는 보다 큰 동아시아사의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내부질서와 역학관계에 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편견과 왜곡을 파악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54-9

다민족·다인종 국가의 역사 인식

- 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HISTORICAL CONSCIOUSNESS IN MULTIETHNIC /
MULTIRACIAL NATIONS: HISTORY OF CONFLICT AND
SEEKING SOLUTIONS FOR CO-EXISTENCE

▣ 박용희 지음 (Park Yong-hui et al.)

▣ 신국판 327쪽 (Small octavo 327p)

▣ 2009

₩ 13,00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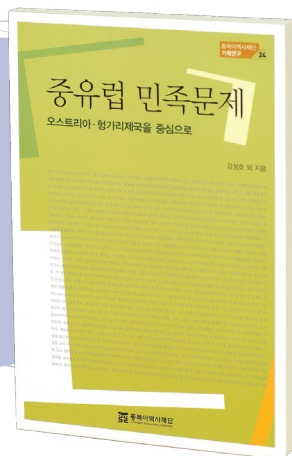
▣ ‘민족(NATION)’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민족, 국가, 국민 등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의 표준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것을 유보하고, 민족이라는 담론이 다민족·다문화로 바탕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민족담론 형성사를 열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역사가 야기한 현실사회의 문제들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다민족·다문화로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국가들 중 자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이 문제가 된 경우를 찾아 비교하였고, 이런 문제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전망과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여전히 세계 각국은 ‘평범’하지만 강력한 국민국가를 지향하며 일국(一國)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민족 다문화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가 일국사적 인식을 넘어 새로운 다원적 사회를 향해 ‘열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147-1


중유럽 민족문제

-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을 중심으로

NATIONAL QUESTION IN THE AUSTRIA-HUNGARIAN MONARCHY

- 강성호 외 지음 (Kang Seong-ho et al.)
- 신국판 225쪽 (Small octavo 225p)
- 2009
- ₩ 11,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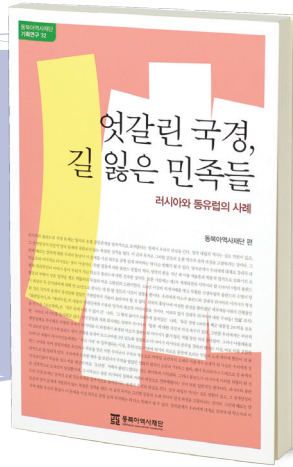
 이 책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민족 정책의 다양한 모습을 분석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즉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 이후 오스트리아와 그 후속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와, 오늘날 이들이 보이는 유럽통합의 양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19~20세기의 통합과 분열과정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발생했던 민족 문제와 민족 정책, 민족 이론을 탐구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주요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연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수민족들과 연맹하여 제국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각 소수민족들은 민족자결주의를 통해 독자적인 민족국가로 나아갔습니다.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틀을 강화하며 동북공정이나 티베트 민족 문제 등을 처리하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민족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동아시아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32-7

엇갈린 국경, 길 잃은 민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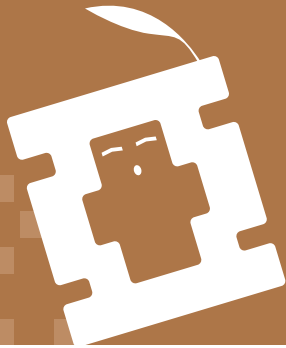
-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

CONFLICTING BORDERS AND LOST PEOPLES: RUSSIA AND ITS NEIGHBORING STATES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 eds.)
- 📖 신국판 285쪽 (Small octavo 285p)
- 📅 2009
- ₩ 12,000 (\$12)



📖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공산주의의 틀로 모여있던 민족들이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를 건국하였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연구의 대상 또한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러시아와 인접국가 사이의 국경과 민족문제가 역사연구의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와 그 인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경 분쟁과 민족정체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문제, 발트3국의 민족과 국경문제, 변경지역 칼리닌그라드의 역사 정체성 찾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분쟁, 중앙아시아의 민족 문제와 국경분쟁,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세르비아 팽창 민족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민족정체성과 관련한 러시아와 인접국 간의 사례 연구는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전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국경과 민족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동북아의 역사 갈등 및 영토문제를 비교·연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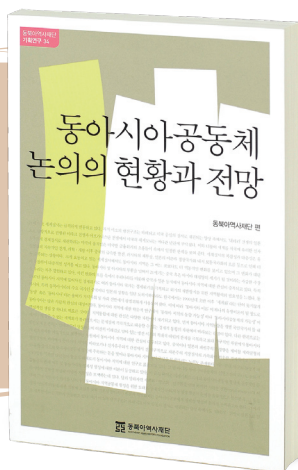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역사인식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THE DISCUSSION ON THE EAST ASIAN COMMUNITY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신국판 447쪽 (Small octavo 447p)
- 2009
- ₩ 20,00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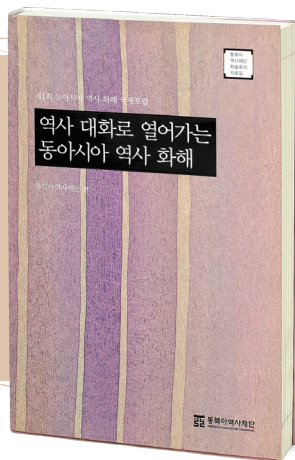


21세기 초 동아시아는 복합변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국력강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간 차원에서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익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체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거대 조류를 타고 과거 국익에 기초하여 국가가 주도했던 국제관계는 다차원적 네트워크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는 각기 다른 형태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동아시아 인식과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 민족주의 극복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문제점,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를 성찰하고, 동아시아공동체의 인식공유와 확보를 위한 대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BN 978-89-6187-166-2

역사 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

OPEN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THROUGH THE HISTORICAL DIALOGUE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 신국판 455쪽 (Small octavo 455p)
- 📅 2009
- ₩ 15,0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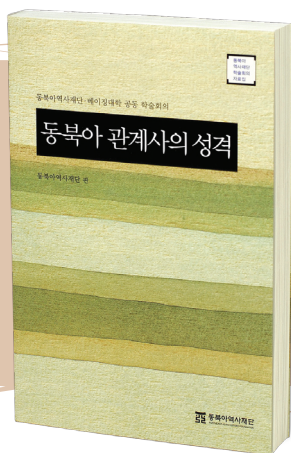


📖 제1회 동아시아 역사 화해를 주제로 개최되었던 국제포럼에서 발표된 글을 모은 이 책은, 동아시아 학자뿐만 아니라 서구 학자들의 역사 화해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역사 화해를 위한 대화가 어떻게 해야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이 국가 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상호의존이 깊어지면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도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관계의 역동적 발전과 변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역사인식 문제가 갈등과 불화의 씨앗으로 남아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 역사문제가 주요한 도화선이 되고 있는 한중 양국 간의 감정적 갈등은 동아시아의 미래 설계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새로운 역사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줍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미래를 설계하고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ISBN 978-89-6187-108-2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ASIA RELATIONS HISTORY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 신국판 415쪽 (Small octavo 415p)
- 📅 2009
- 💰 ₩ 15,0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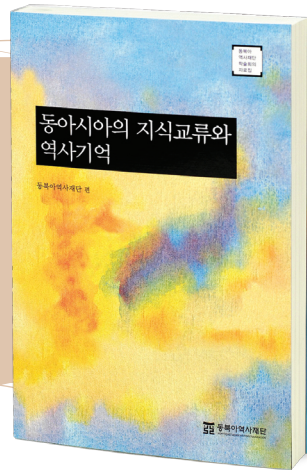
📖 한중 양국은 이웃나라로서 역사상 갈등과 전쟁도 겪었지만 평화적인 우호 협력관계 역시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문화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전래되어 한국인의 문자 생활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 유교, 불교, 도교 문화가 한국문화에 끼친 영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문화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서로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다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며 의복, 음식, 주거문화 등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양국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과 베이징대학이 2008년 공동개최한 학술회의의 글을 모은 것입니다. 그간 한중사이에서 발생한 역사 인식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쟁점 사안들을 통시대적 관점에서 조명하였으며,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의 관점을 통해 동북공정 이후 동북아 관계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SBN 978-89-6187-126-6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INTELLECTUAL EXCHANGE AND HISTORICAL MEMORY IN EAST ASIA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 신국판 405쪽 (Small octavo 405p)
- 📅 2009
- ₩ 15,0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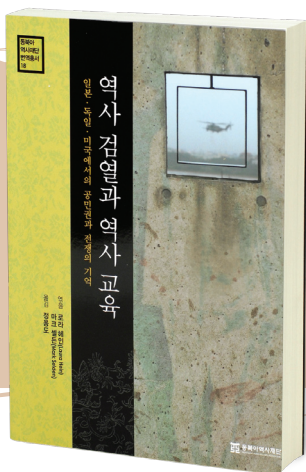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과 동아시아연구포럼이 공동개최한 국제학술회의의 글을 모은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동시에 출판하였습니다. 제1부 해외정보와 지식의 유통, 제2부 아시아주의의 연쇄, 제3부 역사상의 상호인식과 역사기억, 총 3부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지역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동아시아 지식교류의 역사를 확인하고,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 경험과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에 내재해 있는 역사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사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동아시아 역사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합니다. ISBN 978-89-6187-143-3

역사 검열과 역사 교육

- 일본 · 독일 · 미국에서의 공민권과 전쟁의 기억

CENSORING HISTORY: CITIZENSHIP AND MEMORY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 로라 헤인 · 마크 셀튼 지음, 정용도 옮김
(Laura Hein · Mark Selden, Jeong Yong-do trans.)
- 신국판 479쪽 (Small octavo 479p)
- 2009
- ₩ 18,00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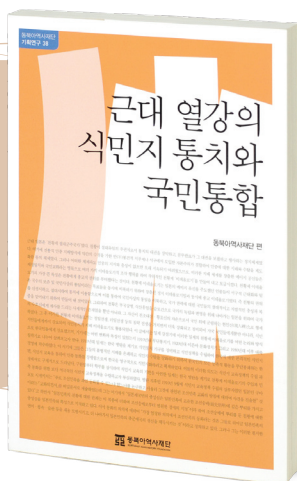


이 책은 일본 · 독일 · 미국 교과서가 전쟁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전쟁, 세계 권력, 사회변화의 교훈들'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부에서는, 교육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전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일본 · 독일 · 미국의 교과서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한일 양국 공동역사교과서의 집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전쟁과 민주주의 교육을 주제로 한미일 교육자들의 학술교류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넘어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최근의 역사에서 발생했던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던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어야만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24-2

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

COLONIAL RULE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MODERN PERIOD

-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 신국판 297쪽 (Small octavo 297p)
- 📅 2010
- ₩ 12,0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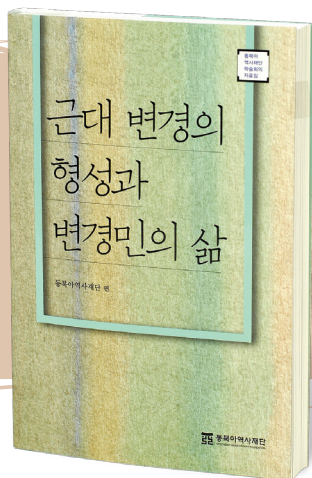


📖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현재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문제들과 그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과거사 인식의 문제도 이러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해석 및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근대 열강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문제를 소개하고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1부에서 서양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주제로 영국, 프랑스, 구소련의 식민지 통치를 다루었으며, 2부에서는 일본의 국민통합과 식민통치를 주제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 조선과 함께 홋카이도와 만주 등 근대 일본의 국민통합과 식민지 지배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근대 서양 제국주의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이해하고, 과거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행한 역사로 인해 야기되는 현재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ISBN 978-89-6187-176-1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THE ORIGIN AND LIVES OF MODERN BORDERLAND PEOPLES

-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 신국판 349쪽 (Small octavo 349p)
- 2009
- ₩ 13,000 (\$13)



이 책은 19세기 이래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참여하게 대립되어 온 변경문제를 주제로 동아시아 각국은 어떠한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동북아시아 각국의 변경 정책의 차이, 중앙과 지방에서의 변경인식의 차이 등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및 변경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이주민을 둘러싼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러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 문제 개입을 다룸으로써 한중 간의 국경 문제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성이라는 시각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100년을 앞두고 있어 간도협약과 만주정책, 북간도 지역의 한인사회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BN 978-89-6187-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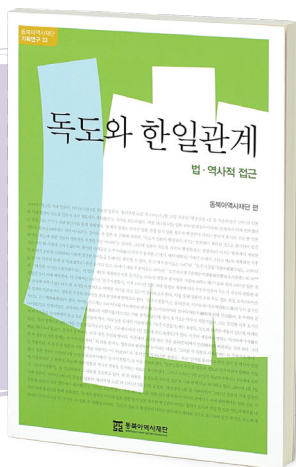


독도·국제법

독도와 한일관계 - 법·역사적 접근

DOKDO AND KOREA-JAP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LAW AND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신국판 205쪽 (Small octavo 205p)
 2009
 ₩ 10,0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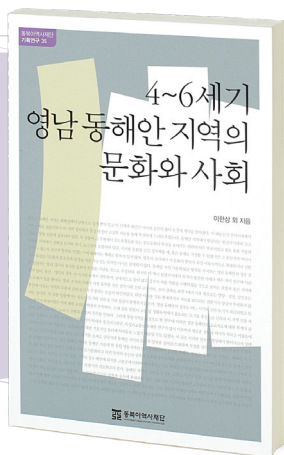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50여 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아직 전적으로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일본 내 정치변화로 인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바람이 얼마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며 독도 문제를 법과 역사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독도와 관련한 해양법적 접근과 국제법 체계 분석을 통해 영토 문제 등 국제법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역시 '독도와 한일관계'입니다. 독도 문제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린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히고,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64-8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THE CULTURE AND SOCIETY OF YEONGNAM'S EAST SEA COASTAL REGIONS, 4-6TH CENTURIES

- 📖 이한상 외 지음 (Lee Han-sang et al.)
- 📖 신국판 311쪽 (Small octavo 311p)
- 📅 2009
- ₩ 13,000 (\$13)



📖 이 책은 동해와 울릉도가 한국사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긴 반도이고, 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태백산맥은 지역 간의 교류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동해와 울릉도는 이런 지리적 제약을 해소해주고, 멀리 떨어진 사람 간의 소통과 물류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원형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지만, 이는 다소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최근 울진봉평신라비, 영일냉수리신라비, 포항중성리신라비 등의 발견으로 동해안 지역의 고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해와 울릉도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조사 결과를 모아 정리·분석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삼국시대에 한정하여 삼국시대 동해안 지역 주민의 문화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67-9

독도·울릉도 연구 - 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HISTORICAL, ARCHAEOLOGICAL AND GEOGRAPHICAL STUDIES ON DOKDO AND ULLEUNGDO

동북아역사재단 편 (NAHFeds.)
 신국판 297쪽 (Small octavo 297p)
 2009
 ₩ 12,0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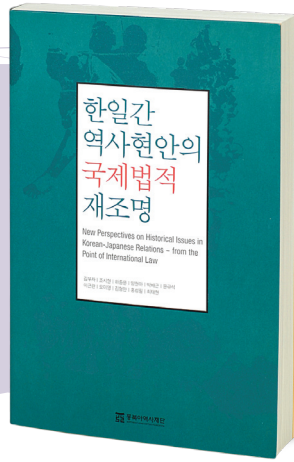
독도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독도자체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의 폭을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주변의 인간 활동과 고립되어 존재하는 지도상의 고도(孤島)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인간의 활동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독도와 울릉도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상을 역사·고고·지리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인식 그리고 메이지 태정관 문서를 통해 나타난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확인하였고, 울릉도에서 발굴한 유물을 통해 고대 울릉도의 사회상을 살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기능과 가치를 정치·지리·지정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170-9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 IN KOREAN-JAPANESE RELATIONS - FROM THE POINT INTERNATIONAL LAW

- ✎ 김부자 외 지음 (Kim Bu-ja et al.)
- 📖 신국판 669쪽 (Small octavo 669p)
- 📅 2009
- ₩ 20,000 (\$20)



이 책은 한일 간의 역사현안과 관련된 여러 국제법적 과제들을 재조명하고 이에 적절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2000년 법정’ -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법학자 2인과 역사학자 2인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법적 문제점을 동시에 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 역사 속에서 여성 인권의 유린이라는 역사적·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야 간 학제적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침탈 관련 보호국논쟁의 내용과 동향에 대한 연구, 동경재판에서의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비교연구, 국제인권기준에서 조명한 재일한국인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 재일 한국문화재의 반환촉진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 미국에서의 전후배상 소송에 대한 연구 등 한일 역사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제를 국제법적 정의라는 시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82-5



독도와 한
독도·울릉도 연구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영남 동해안 문화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독도와 한
독도·울릉도 연구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영남 동해안 문화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독도와 한
독도·울릉도 연구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영남 동해안 문화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독도와 한
독도·울릉도 연구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영남 동해안 문화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s on
Korean-Japanese Relations - from the
Point of International Law
김정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동북아역사재단 역사교양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ooks for General Readers

- **고조선·단군·부여** Old Joseon, Dangun, and Buyeo
동북아역사재단 편
- **다시 보는 고구려사** Koguryo History Revisited
동북아역사재단 편
-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The Politics and Society of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편
-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The Culture and Thought of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편
- **고구려 문명 기행 - 고구려의 도읍, 환인과 집안을 찾아서**
A Cultural Travel Guide: Koguryo's Ancient Capticals of Jolbonseong (Huanren) and Gungnaeseong (Jian)
동북아역사재단 편
-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Manchuria: Land, People, and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새롭게 본 발해사** A New History of Balhae
동북아역사재단 편
- **발해의 역사와 문화** The History and Cultura of Balhae
동북아역사재단 편
-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Footprints of the Koguryo People in Central Eurasia
지배선 외
- **고구려를 찾아서** In Search of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편
- **역사 속의 한일관계** Korean-Japan Relations i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몽골의 역사** History Textbook of Mongol
강톨가 외 / 김장구 · 이평래 옮김
-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1·2** Past and Present of Koguryo Remains (1·2)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기획편집위원회 편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pecial Research Projects

- 01 ●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in the Chinese Studies of Koguryo History
이인철 외
- 02 ●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in the Chinese Studies of Balhae History
임상선 외
- 03 ●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in the Chinese Studies of “Northeastern Borderlands”
윤취탁 외
- 04 ● **중국의 한국 고대사 연구 분석** A Critique of Chinese Studies on Ancient Korean History
고광의 외
- 05 ●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A Critique of Chinese Studies on Ancient Korean Culture
김일권 외
- 06 ●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in the Chinese Studies of Ethnicity and Borderlands
윤영인 외
- 07 ●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The Problematics of Descriptions of Ancient Korea in Chinese Government History Textbooks
김현숙 외
- 08 ● **중국 역사 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The Issues of Ethnicities, Nations, and Territories in Chinese Government History Textbooks
장세윤 외
- 09 ●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The Japanese Right Wing of Yesterday and Today
허동현 외
- 10 ● **부여사와 그 주변** History of the Buyeo and Its Peripheries
윤용구 외
- 11 ●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Perceptions on the Neighboring States in History Textbooks of East Asia
연민수 외
- 12 ●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Territorial and Historical Conflicts in Europe
김승렬 외
- 13 ● **함께 쓰는 역사 -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
Franco-Germ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History Textbook Projects
이용재 외
- 14 ●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 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Process of German-Polish Historical Reconciliation
한운석 외
- 15 ●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Comparison of History Textbooks in China, Taiwan, and Hong Kong
임상선 외

- 16 ㉠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The Chinese Research on North Asiatic Peoples and States
정병준 외
- 17 ㉠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Korea and Korean History in College History Textbooks of China
신주백 외
- 18 ㉠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Korean Island
배진수 외
- 19 ㉠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Studies on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Empire
박수철 외
- 20 ㉠ **고구려 왕릉 연구** The Study of Royal Mausoleums of Koguryo
강현숙 외
- 21 ㉠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The Issues and Study of Sino-Korean Relation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cademia
동북아역사재단 편
- 22 ㉠ **타이완·홍콩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History Education and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n the Universities of Taiwan and Hong Kong
송요후 외
- 23 ㉠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The Myths of the Bear in Northeast Asia and the Sinocentric Mythology
이평래 외
- 24 ㉠ **중유럽 민족문제 -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을 중심으로**
National Question in the Austria-Hungarian Monarchy
강성호 외
- 25 ㉠ **고구려 벽화 연구의 현황과 콘텐츠 개발**
Research of the Koguryo Murals Paintings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Digital Content
박아림 외
- 26 ㉠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Perceptions of Histories on Korea and Manchuri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조인성 외
- 27 ㉠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 문화**
Early Bronze Age with Northern Steppe Culture in Neighboring Region of Lyohe River
이청규 외
- 28 ㉠ **중국의 통일국가론으로 본 고구려사**
Reading Koguryo History through the Lens of China's "United Multiethnic State" Ideology
정운용 외
- 29 ㉠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the Conflicting Viewpoints on Balhae History among East Asian Nations
이효형 외
- 30 ㉠ **다민족·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 -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Historical Consciousness in Multiethnic/ Multiracial Nations: History of Conflict and Seeking Solutions for Co-existence
박용희 외



- 31 ●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The Search for Sources on Modern Manchuria
한석정 외
- 32 ● **엇갈린 국경, 길 잃은 민족들 -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
Conflicting Borders and Lost Peoples: Russia and Its Neighboring States
동북아역사재단 편
- 33 ● **독도와 한일관계 - 법·역사적 접근**
Dokdo and Korea-Jap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Law and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34 ●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the Discussion on the East Asian Community
동북아역사재단 편
- 35 ●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The Culture and Society of Yeongnam's East Sea Coastal Regions, 4-6th Centuries
이한상 외
- 36 ●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Historical Sources and Research Trends in the Study of the Conquest Dynasties from
the 10th to the 18th Century
윤형민 외
- 37 ● **독도·울릉도 연구 - 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Historical, Archaeological and Geographical Studies on Dokdo and Ulleungdo
동북아역사재단 편
- 38 ● **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
Colonial Rule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Modern Period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earch Series

- 01 ● **고구려의 국가 형성** State Formation of Koguryo
이남규 외
- 02 ●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 Koguryo Culture in Mural Paintings
전호태 외
- 03 ●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 복원** Koguryo Tumulus Paintings with Emphasis on Image Restoration
진영선 외
- 04 ●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Thoughts and Culture of Koguryo
서영대 외
- 05 ● **고구려의 국제 관계** Koguryo's Interstate Relations
권오중 외
- 06 ● **고구려 문화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guryo Culture
강현숙 외

- 07 ㉠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 관계** Parhae's Succession to Koguryo
정진현 외
- 08 ㉠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The Korean Chinese Diplomatic Relationship and Tributary Royal Ordaining System
방향숙 외
- 09 ㉠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Chinese Perception on Joseon in the 15-19th Centuries
박원호 외
- 10 ㉠ **동아시아 근대'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 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
Reception and Appropriation of "Nation" Conception in Modern 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China, and Japan Cases
송규진 외
- 11 ㉠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Understanding Modern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김한중 외
- 12 ㉠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Chinese Nationalism
이개석 외
- 13 ㉠ **미토콘드리아 DNA변이와 한국인 집단의 기원에 관한 연구**
Modern Korean Origin and the Peopling of Korea as Revealed by mtDNA Lineages
김옥 외
- 14 ㉠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The Life and Culture of Koguryo from the tomb mural and artifacts
권오영 외
- 15 ㉠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A Study on Tributary-Assignment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Ancient Dynasties and
Chinese Dynasties
여호규 외
- 16 ㉠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Past and Present of Chinese-Korean Community in Yanbian
채영국 외
- 17 ㉠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Perspectives of Chinese Historians on Mongolian History
김장구 외
- 18 ㉠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History Textbook and Education in China
박선영 외
- 19 ㉠ **고분으로 본 발해 문화의 성격** The Nature of Balhae Culture Shown by Tombs
정영진 외
- 20 ㉠ **낙랑 문화 연구** A Study of Nangnang [Lo-lang] Culture
이남규 외
- 21 ㉠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Ancient East Asian World-system Theory and Koguryo's Identity
박대재 외



- 22 ●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둥 불상**
Buddhist Sculptures of Koguryo and the Shandong Province of China
양은경 외
- 23 ●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East Asian Perception on Ocean Trade and Embargo
장동익 외
- 24 ●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The Balkans of Asia: Manchuria and Western Imperialism
백준기 외
- 25 ●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The Five Capitals of Balhae and Territorial Changes
한규철 외
- 26 ●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Historical Geography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Manchuria
유지원 외
- 27 ●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Territorial Conflicts over Islands and Sea Boundaries in the 19th Century Northeast Asia
조세현 외
- 28 ●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Legal Solution for the Dispute over the Ieodo (Socotra Rock)
김영구
- 29 ● **중국의 영토분쟁** China's Territorial Disputes
이동률 외
- 30 ●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Chinese International Trade and Moder East Asia
박정현 외
- 31 ●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 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 Northeast Asia: From the Sino-Japanese War to the Korean War
이재훈 외
- 32 ●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Narratives on the Minorities' History Written by the Chinese Scholars in China
이평래 외
- 33 ●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The Research of Qingshigongcheng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정혜중 외
- 34 ●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책의 문제**
-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The Integration Policy if the Multi-ethnic N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Peace
노명환 외
- 35 ●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A Study of Liaodong and Xuantu Commandery
서영수 외
- 36 ●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The Nationality Policies and Changing Historiography in Russia
박상철 외
- 37 ●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New perspectives on the Okcho (Wuju) people based on newly found archaeological materials
from Maritime Region of Russia and Neighbouring regions
강인욱 외

- 38 ㉠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The Foreign Legation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opening Ports
하원호 외
- 39 ㉠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Japanese Colonial Rule and “Colonial Modernity”
정태현 외
- 40 ㉠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Territorial Problems in the United Nations: Issues and Cases
김학린
- 41 ㉠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Japanese Perceptions of Korea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김광열 외
- 42 ㉠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이용 사례 분석**
Invention of Local Culture: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Archeological Sources
김병준 외
- 43 ㉠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Japanese Thought in East Asian World: An Inquiry into the Generation of
“The Egotistical World View of Japan” with the Flow
김현구 외
- 44 ㉠ **하상주단대공정 -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The Xia-Shang-Zhou Chronology Project: Truth and Falsehood in the Studies of
Ancient Chinese Civilization
심재훈 외
- 45 ㉠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Changes in Ancient Civilization and Groups of Inhabitants in the Basin of Liaohe River
송호정 외
- 46 ㉠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A Critical Review of the Exploration of the Origin of Chinese Civilization Project
박양진 외
- 47 ㉠ **근대 한·일 간의 상호 인식** Perception of the 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in Modern times
권태역 외
- 48 ㉠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The Political Strategies by Korea, China, and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왕현종 외
- 49 ㉠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한국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Qing History Research Trends in China
유장근 외
- 50 ㉠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The Appearance of Koguryo and its backdrop
동북아역사재단 편
- 51 ㉠ **북방민족과 중원왕조의 민족인식**
The Northern Races and Central Chinese Plain Dynasties
류영표 외



- 52 ●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The Adoption of the horizontal entrance-style stone chamber tomb and changes in Koguryo Society
권오영 외
- 53 ●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East Asia History Education in Europe and America
한운석 외
- 54 ● **중국 동북연구 - 방법과 동향** The Study of Northeast China: Methods and Trends
이동진 외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ranslation Series

- 01 ●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上·下)** History of Koguryo by Chinese Historian (1·2)
耿鐵華 / 박창배
- 02 ●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Chinese Perspectives on Border and Territory
馬大正 · 劉瀾 / 조세현
- 03 ●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Chinese Research on Northeastern Region
馬大正 / 이영옥
- 04 ● **동북아시아와 카라수크 문화** Northeast Asian and the Karasuk Culture
E.A. 노브고로도바 / 이재정
- 05 ● **고구려 역사문제 연구논문집** Research Papers on the Issues in Koguryo History
厲聲 · 朴文一 / 연변대학
- 06 ● **민족과 국가 -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Ethnicity and the State: Genealogy of the Chinese Theory of "Unified Multiethnic State"
王柯 / 김정희
- 07 ● **고구려어 - 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켜 주는 언어**
Koguryo: The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
C.I. 백워드 / 정광
- 08 ● **2005년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논문집**
Chinese Studies on Koguryo History in 2005
中國社會科學院 東北工程辦公室 · 延邊大學 中朝韓日關係史研究中心 / 연변대학
- 09 ●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下)**
A History of the Chinese Northeast (*Dongbei tongshi*) by Jin Yu-fu (1·2)
金毓黻 / 동북아역사재단
- 10 ● **발해국 흥망사** The Rise and Fall of the Balhae State
濱田耕策 / 신영희
- 11 ●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Chinese Borderlands: Historical Memory and Ethnic Identity
王明珂 / 이경룡
- 12 ●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 The Capital of East Asia and Balhae
田村晃一 / 임석규

- 13 ●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하)** Early Chinese Civilization You-Yan: Northeastern Culture (1-2)
郭大順·張星德 / 김정열
- 14 ●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The History and Archaeological Sites of Koguryo
東潮·田中俊明 / 박천수·이근우
- 15 ● **역사인식 논쟁** Debate on Historical Consciousness
高橋哲哉 / 임성모
- 16 ●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War Responsibility and Post-war Reparation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 서각수·신동규
- 17 ● **중국 현대국가의 기원** Origins of the Modern Chinese State
필립 쿤 / 윤성주
- 18 ● **역사 검열과 역사 교육 - 일본·독일·미국에서의 시민권과 전쟁의 기억**
Censoring History: Citizenship and Memory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로라 헤인·마크 셸든 / 정용도
- 19 ● **위태로운 변경 -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토마스 바필드 / 윤희인
- 20 ● **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반도 - 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
Korea, Manchuria and Liaodong Peninsular in the Eyes of Russians: Travelog of Garin Mikhailovski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가린-미하일롭스키 / 이희수
- 21 ● **러시아 외교관이 바라본 근대 한국** Korea in the Eyes of Russian Diplomat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포지오 / 이재훈

동북아역사자료총서 Sources for Northeast Asian History

- 01 ● **발해사 자료집 (상·하)** Sourcebook of Balhae History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 02 ●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The Joseon Dynasty Sources for Inner Asia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03 ● **고조선·단군·부여 자료집 (상·중·하)**
A Sourcebook of the Old Joseon, Dangun and Buyeo (1~3)
동북아역사재단 편
- 04 ●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A Sourcebook of Koguryo-related Epigraphical Materials in China
동북아역사재단 편
- 05 ●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A Sourcebook of Joseon-Qing Border Conferences
동북아역사재단 편

- 06 ● 백두산 정계비 자료집
A Sourcebook of the Border Demarcation Monument in the Baekdu Mountain
동북아역사재단 편
- 07 ●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Section on the Border Region i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Dongmun Hwigo)*
배우성 · 구범진 역
- 08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 예비회담~5차 회담
Compilation 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Documentary through the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in 1965 I - Preliminary to the Fifth Conference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09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I- 평화선·복송·6차 회담(예비교섭·청구권)
Compilation 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Documentary through the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in 1965 II - Peace Line, Repatriation to North Korea, 6th Conference [Preliminary Negotiations, and Right of Claim]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10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II- 6차 회담
Compilation 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Documentary through the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in 1965 III - 6th Conference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11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V- 고위 정치회담 및 7차 회담[법적지위·어업관계·문화재]
Compilation 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Documentary through the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in 1965 IV - High-Level Talks and 7th Conference [Legal Status, Fishing, and Cultural Treasures]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12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V- 7차 회담[기본관계·청구권·협정체결]
Compilation 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Documentary through the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in 1965 V - 7th Conference [Basic Relations, Fight of Claim, Conclusion of Agreement]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13 ● 국역 『同文彙考』 犯越 史料 1
Section on Illegal Border Crossing i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Dongmun Hwigo)*
구범진 · 배우성
- 14 ● 譯註 『勘界使臚錄』 Translation and Annotation: *Gamgyesa Deungnok*
이왕무 외
- 16 ●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General Chron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of Koryo Age
장동익
- 17 ● 중일문제의 진상 - 국제연맹 조사단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1932년 4월~8월)
Reality of China and Japan Issues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 박선영

- 21 ㉞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 - 史記 外國傳 譯註
Translation and Annotation: China History on Foreign Relations 1
-*Shiji*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s
동북아역사재단 편
- 22 ㉞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 漢書 外國傳 譯註 (上·下)
Translation and Annotation: China History on Foreign Relations 2
-*Hanshu*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s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 23 ㉞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3 -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下)
Translation and Annotation: China History on Foreign Relations 3
-*Houhanshu*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s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 24 ㉞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4 - 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
Translation and Annotation: China History on Foreign Relations 4
-*SanGuozhi · Jinshu*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s
동북아역사재단 편
- 25 ㉞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5 - 宋書 外國傳 譯註
Translation and Annotation: China History on Foreign Relations 5
-*Songshu*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s
동북아역사재단 편
- 26 ㉞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6 -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Translation and Annotation: China History on Foreign Relations 6
-*Nanqishu · Liangshu · Nanshi*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s
동북아역사재단 편
- 118 ㉞ 近代韓國外交文書 - 제너럴 셔먼호 사건·병인양요 (제1권)
Diplomatic Papers of Modern Korea, 1876-1910 (1)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 119 ㉞ 近代韓國外交文書 - 오페르트 사건·신미양요 (제2권)
Diplomatic Papers of Modern Korea, 1876-1910 (2)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발굴보고서와 도록 Excavation Reports and Catalogues

- ㉞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A Report on Joint Inter-Korea Archaeological Survey of Koguryo Archaeological Sites in
the Pyeongyang Area
동북아역사재단·북한 사회과학원·문화보존지도국 편
- ㉞ (남북공동학술조사보고서)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A Report on Joint Inter-Korea Archaeological Survey of Koguryo Anhak Palace
동북아역사재단·북한 김일성종합대학·사회과학원·문화보존지도국 편



- **내몽고 중남부의 오르도스 청동기와 문화**
Ordos Bronze Wares and Culture of South and Central Inner Mongolia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내몽고문물고고연구소 편
-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 Rock Paintings of Central Eurasia**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 편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 - 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Koguryo Relics in Japan I : Reconsideration of Japanese Survey of Koguryo Relic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Koguryo Relics in the Kanto Region 1
동북아역사재단 편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I - 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西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Koguryo Relics in Japan II : Reconsideration of Japanese Survey of Koguryo Relic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Koguryo Relics in the Kansai Region 1
동북아역사재단 편
- **몽골 고비 알타이의 암각화 Petroglyphs in Bayan-Uul Sumn, Gobi-Altai Aimag in Mongolia**
동북아역사재단 ·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편
-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 보고서**
The 2007 Excavation Report on the Kraskino Site in Primorsky Krai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 연구소 편
- **몽골 서북부 지역의 암각화 Rock and Cave Paintings in Northwest Mongolia**
동북아역사재단 ·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편
-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 보고서**
The 2008 Excavation Report on the Kraskino Site in Primorsky Krai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 연구소 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논저 목록 Northeast Asian History Bibliography Series

- 01 ● **고구려사 연구논저 목록** Bibliography of Koguryo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02 ●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중세)** Bibliography of Korea-China Relations (Pre-modern period)
동북아역사재단 편
- 03 ●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근현대)** Bibliography of Korea-China Relations (Modern period)
동북아역사재단 편
- 04 ● **발해사 연구논저 목록** Bibliography of Balhae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05 ● **북방민족사 연구논저 목록** Bibliography of Inner Asia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06 ● **고조선·단군·부여 연구논저 목록** Bibliography of Old Joseon, Dangun, and Buyeo
동북아역사재단 편



- 07 ● **중국의 고고와 문화 연구논저 목록** Bibliography of Archeology and Culture of China
동북아역사재단 편
- 08 ●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 역사교과서 연구논저 목록**
Bibliography of the studies on Japanese History Textbooks
동북아역사재단 편
- 09 ●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논저 목록 (상·하)**
Bibliography of the studies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 10 ● **한일 역사현안 관련 야스쿠니신사 연구논저 목록** Bibliography of the studies on Yasukuni Shrine
동북아역사재단 편

기타

Other Publications

-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Data Bank of Colonial History Related Territorial Disputes
배진수 · 윤지훈
- **세계 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
The Role of NGOs Network for the Peacefull Conflict Resolution
배진수 · 강성호
-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Overcoming Historical Conflicts for Northeast Asia Co-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The History of Early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사회과학원 편
-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s in Korean-Japanese Relations
- from the Point on international Law
김부자 외
- **역사 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
Open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through the Historical Dialogue
동북아역사재단 편
-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 關東·東北 지역 편**
War Recollections and Peace Museums in Japan I
동북아역사재단 편
-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Asia Relations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Intellectual Exchange and Historical Memory in East Asia
동북아역사재단 편
-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The Origin and Lives of Modern Borderland Peoples
동북아역사재단 편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하는

행복한 역사읽기

올바르고 새로운 분야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맞춤 도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과서 문제, 중국의 한국고대사 왜곡 등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의 역사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역사 알기



본 도서목록은 100% 친환경 용지와 식물성 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